

말할 수 없는 영광

수년 전 LA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 일이다. 하루는 뉴욕에 있는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. 숨을 몰아쉬면서 말을 하는 것이다. 무슨 영문인지 몰라 큰 일이 일어난 줄 알았다.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께서 말하기를 지금 눈(snow)을 치우고 있다고 한다. 그 해 동부가 너무 춥고 또한 눈이 많이 와서 또 다시 집 앞에 있는 눈과 교회에 있는 눈을 치운다는 것이다. 그 때 그 친구에게 LA 날씨는 82도인데.... 라고 자연스럽게 말했던 기억이 있다. 그랬더니 나를 너무나 부러워했다. 그 친구는 더운 날씨를 좋아하기 때문이다. 더운 날씨 중에도 습도가 높은 날씨를 좋아하는 보기 드문 사람이었다. 그래서 늘 LA 날씨를 좋아하고 그리워했다.

그런데 나는 상황이 달랐다. 4 계절이 있는 곳이 좋고, 낮은 온도가 좋고, 또한 눈을 좋아한다.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를 부러워했다. 서로가 뒤 바뀌어서 살면 좋을 것을 그 친구는 동부에서 평생을 살고 나는 서부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. 그러면서 전화로 공평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며 전화를 끊은 적이 있다.

세상에는 공평치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다.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한 세상을 살고, 어떤 사람은 작은 키로, 많은 곳을 다니지 못하고, 고아로, 건강치 않은 몸으로, 하는 일 마다 잘 안 되는 듯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. 그래서 참으로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, 듣고 산다.

그런데 실은 내 눈에는 그것이 공평치 않게 보일 수 있지만 모든 것에 뜻이 있다. 아무리 적고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지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다.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LA와 그 친구가 살고 있는 뉴욕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.

나는 내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를 다 알 수 없다.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그 때에는 분명한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을 믿는다.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란 했을 것이다. 예수님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알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. 하지만 후에 그들이 그 뜻을 깨달았을 때에는 자신의 목숨을 내 놓게 되었다.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온다. “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” (요한복음 12장 16절)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성으로 가시는 것을 이해 할 수 없었을 것이다. 하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된 것을 보면 그들은 충분히 깨닫고 그 길을 갔다.

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.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. 내가 우둔해서 아직 알지 못할 뿐이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왜 그래야 했는지 알게 하실 그 때에 나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.